

도덕적 민감성에 관한 흄과 현대 흄주의 비교연구

양선이*

【요약】

이 논문의 목표는 도덕적 민감성에 관한 흄과 하이트의 입장을 비교해 봄으로써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의 문제점을 보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이트는 도덕판단에 있어 직관이 우선하며 추론은 상대적으로 무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직관과 감정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직관은 진화의 산물인 ‘준비(preparedness)’를 바탕으로 하여 ‘도덕모듈’로 발현된다. 즉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동기는 진화에 의해 인간의 마음이 발달해 오면서 준비한 몇몇 직관에서 유래했으며, 도덕판단은 신속하고도 자동적인 직관의 산물로,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느린, 의식적인 도덕적 추론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는 도덕적 직관과 정서와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난점이 있다. 하이트는 이에 대해 도덕적 직관은 타고난 도덕적 모듈과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덕의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발달한다고 말하지만, 덕과 선천적인 도덕모듈의 관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나아가 하이트는 직관들이 결함이 있거나 틀릴 수도 있는데, 이 때 특정 직관들의 선함이나 나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 논문에서 나는 이에 대한 답을 흄의 공감이론에서 찾고자 한다.

【주제어】 사회적 직관주의, 도덕적 직관, 공감, 반성, 도덕적 민감성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

**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6S1A3A2925502). 이 연구는 201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I. 하이트(J. Haidt)의 정서적 개와 이성적 꼬리

“정서적 개와 이성적 꼬리(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2001)에서 조너던 하이트는 무해한 금기위반 사례를 통한 도덕판단 인터뷰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덕판단에 있어 직관이 우선하며 추론은 상대적으로 무능함을 그리고 직관과 감정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¹⁾ 하이트는 무해한 금기 사례들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즉각적’으로 그러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그렇게 말한 다음에 학생들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이트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모르겠어요.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못 하겠어요. 다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알아요!’²⁾ 라고.

하이트는 이러한 현상을 ‘도덕적 말문막힘(moral dumbfounding)’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반응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이유를 알른 떠올리지 못하면서도 잘못된 사실만은 곧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도덕적 평가를 할 때 ‘직관’이 우선적이고 ‘추론’은 상대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이트에 따르면 ‘도덕적 직관’이란 도덕적 판단 과정에서 추론에 선행하는 선천적 능력이자 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러한 행동은 신속한 직관과 직감, 그리고 도덕적 감정을 통해 발생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행동에는 뿌리가 되는 다섯 가지

1) 그가 소개한 무해한 금기 위반 사례란 가령 어떤 남매가 합의 하에 재미를 위해 성교를 한 경우, 그리고 한 주부가 옷장을 청소하다가 낡은 성조기를 발견하고 더 이상 그 국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찢어 욕조를 청소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J. Haidt (2001), p. 1024를 참고하십시오.

2) Haidt (2001), p. 1024.

기초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직관은 진화의 산물인 ‘준비(preparedness)’를 바탕으로 하여 ‘도덕모듈’로 발현된다. 즉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동기는 진화에 의해 인간의 마음이 발달해 오면서 준비한 몇몇 직관에서 유래했으며, 도덕판단은 신속하고도 자동적인 직관의 산물로,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느린, 의식적인 도덕적 추론이 이루어진다.³⁾

하이트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도덕판단에 있어 칸트와 같은 이성주의 모델을 거부하고 흄의 정서주의 모델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도덕판단은 이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관에 의해 먼저 판단된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덕적 추론은 이후에 직관적 판단을 합리화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그는 도덕판단에서 이성의 역할을 평가절하하고 사회적 영향을 받는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을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말하는 ‘직관’개념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그의 논문 제목의 의미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그는 자신의 논문 제목 “정서적 개와 이성적 꼬리”를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한다. 즉 “도덕적 정서와 직관이 마치 개가 그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도덕적 이성을 조종한다는 흄의 명제를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설명한다. 즉 논문 제목에서 개의 몸통을 정서에, 이성은 꼬리에 비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서와 직관은 개에 해당하고 추론은 개에 의해 흔들어지는 꼬리에 비유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은 흄의 널리 퍼져있는 논지, 즉 개가 그의 꼬리를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도덕적 정서와 직관이 도덕추론을 몰아간다는 점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옳을 수 있다.”⁴⁾ 나아가 하이트는 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18세기의 흄에게서 이용가능하지 않은

3) J. Haidt & F. Bjorklund (2008), p. 181.

4) Haidt (2001), p. 830.

증거와 이론들을 사용하여 정교한 버전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⁵⁾ 여기서 우리는 하이트의 이론이 현대판 흠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장에서 하이트가 정서와 동일시하고 있는 ‘직관’이 흠에게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II. 흠의 도덕감과 하이트의 도덕적 직관

하이트가 자신의 모델이 현대 흠주의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말하는 ‘직관’ 개념은 흠이 말하는 옳고 그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쾌’, ‘불쾌’의 느낌으로서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이트에 따르면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중심이 되는 도덕적 직관의 근원이 있다. 그러한 것으로 그는 범문화적인 다섯 가지 기초적 직관을 제시한다. 5가지 기초적 직관은 아래와 같다.⁶⁾

- ① 위해(危害)/배려의 직관-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한 민감성.
- ② 공정/호혜의 직관-호의에 보답하지 못한 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처럼 맞대응과 관련된 일련의 감정적 반응.
- ③ 권위/존경의 직관-적절한 존중과 존경으로 표현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는 것처럼 지위와 계급을 탐색하는 것에 관한 관심.
- ④ 순수/신성의 직관-혐오의 감정과 관련. 많은 도덕적 규칙들이 왜 음식이나 性, 월경, 시체처리와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하는데 필요.

5) Haidt & Bjorkund (2008), p. 185.

6) Haidt & Bjorklund (2008), pp. 201-203.

⑤ 내집단/총성의 직관-내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인정, 신뢰, 협력 등의 강한 사회적 감정에 의해 뒷받침되는 특별한 사회적 인지능력.

이상의 하이트의 다섯 가지 기초적 직관으로서 기본정서는 흄에게서 ‘자연적 성향’으로서 주어진 ‘원초적 정념들’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흄에 따르면 정념들은 단순 인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반성인상이다. 감각 인상에는 “감각이 갖는 모든 인상들과 육체적 쾌락과 고통들이 포함될 수 있고”,⁷⁾ “반성 인상에는 정념들과 그들과 유사한 나머지 감정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서, 흄은 반성 인상들을 1차적으로 차분한 (calm) 정념과 격렬한(violent) 정념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정념들은 직접적(direct)이거나 간접적인(indirect) 것으로 구분된다. 직접적 정념들은 선, 악, 쾌락 또는 고통으로부터 직접 일어난다. 예를 들면, “욕망, 혐오, 슬픔, 기쁨, 희망, 공포, 절망, 그리고 안심”등이 그것이다.⁸⁾ 간접적 정념들은 선과 악에 다른 성질들이나 관념들이 덧붙여져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간접적 정념들에는 “다른 성질들의 결합” 이 또한 요구된다.⁹⁾ 여기서 다른 성질들의 결합이란 정념을 일으키는 주체로서의 원인과 그 정념의 대상과의 관계를 말한다. 간접적 정념들의 예로는 “자부심, 수치심, 야망, 허영심, 사랑, 증오, 부러움, 동정심, 교만, 관대함과 이러한 것들에 의존해 있는 것들” 을 들 수 있다.¹⁰⁾ 흄이 말한 원초적 정념으로서 ‘모성애’ 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¹¹⁾은 하이트의 첫 번째 직관인 ‘위해/배려의 직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흄이 원초적 정념이라고 본 ‘호혜(benevolence)’¹²⁾는 하이트의 ‘공정/호혜의 직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흄에게서 가장 원초적 감정으로서 행위의 동기가

7) Hume (1978), p. 275.

8) Hume (1978), p. 277.

9) Hume (1978), p. 276.

10) Hume (1978), p. 276.

11) Hume (1978), p. 277.

12) Hume (1978), p. 277, p. 578.

되는 ‘쾌락의 추구하고 고통에 대한 혐오’¹³⁾는 하이트의 ‘순수/신성의 직관’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흄은 ‘사랑’이라는 간접감정을 타인의 자아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명예에 대한 추구¹⁴⁾와 관련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정념은 하이트가 말한 기초적 직관으로서 ‘권위/존경의 직관’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¹⁵⁾ 끝으로 흄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이끄는 심리적 기제로서 ‘공감’¹⁶⁾이 일차적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끌리게끔 작동한다고 보았는데,¹⁷⁾ 이는 하이트가 다섯 번째 기초적 직관이라고 보는 ‘내집단/충성의 직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이트에 따르면 이상의 5 가지의 선천적인 도덕적 모듈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특정 덕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도덕발달이 이루어진다.¹⁸⁾ 흄에게 있어서도 자연적 성향으로서의 주어진 원초적 정념들이 사회에서 덕으로 일컬어지는 덕목들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현되면 그 사람에게 성격적 특성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¹⁹⁾ 이와 같은 기초적 직관들이 어떻게 도덕적 판단에 연결될 수 있는가? 하이트는 이 문제를 기초적 직관이 도덕적 직관과 연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으며, 흄은 정념이 도덕감과 연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하이트는 왜 도덕적 판단을 도덕적 직관으로 보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이트가 흄의 도덕감 이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²⁰⁾ 이를

13) Hume (1978), p. 275.

14) Hume (1978), p. 277.

15) Hume (1978), p. 575, p. 602.

16) Hume (1978), pp. 386-387.

17) 흄은 이와 같은 공감은 ‘제한된 공감(limited sympathy)’라고 보고 이와 같은 공감의 편파성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된 공감(extensive sympathy)’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Hume (1978), pp. 575-576. 제한된 공감과 확장된 공감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양선이 (2014)를 참고하십시오.

18) Haidt & Bjorklund (2008), pp. 208-209.

19) 흄에게서 정념과 덕의 관계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양선이 (2002, 2011)를 참고하십시오.

20) 예를 들어 현대의 흄주의자인 제시 프린츠를 참고하십시오. Prinz (2007), pp. 87-88.

이해하기 위해 흄의 도덕감 이론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흄에 따르면 도덕은 느낌의 문제이다. 흄은 도덕적 판단은 증명을 허용하지 않으며, 추론적 사실도 아니라는 주장하며 도덕이성주의자들을 비판한다. 도덕적 판단이 이성의 증명이나 추론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인 후,²¹⁾ 악덕이란 어떤 행위에 대해 당신의 ‘내부’를 들여다 볼 때 ‘당신 속’에서 일어나는 ‘불승인의 감정’이라고 흄은 주장한다. 여기도 사실의 문제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이란 이성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의 대상이다. 흄에 따르면 그와 같은 사실은 대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속에 있다.²²⁾

도덕적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보면서 흄은 도덕판단이란 도덕감이라 본다. 즉 흄에 따르면 도덕감이란 타인에게서 보이는 특정 종류의 행위나 품성들에 대해 마음의 받아들임을 느끼거나 또는 물리침을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행위자의 성격에 대하여 유덕하거나 부덕하다고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데, 이는 그 행위자의 성격이 우리에게 쾌락이나 고통을 주고 그에 따라 우리가 승인이나 불승인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로부터 느끼게 되는 모든 쾌락과 고통의 감정 가운데, 특히 이 행위자의 성격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는 쾌락과 고통의 감정이 곧 도덕감인 것이다.

이상의 흄의 생각은 하이트의 도덕적 직관개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이트에 따르면 도덕적 직관이란 도덕적 판단 과정에서 추론에 선행하는 선천적 능력이자 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이다. 예를 들어 흄이 말하는 옹고 그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쾌, 불쾌의 느낌으로서의 혐오감과 분노를 포함한 다양한 도덕적 감정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덕이성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실제

21) 흄의 도덕이성주의자에 대한 반대논변은 Hume (1978), pp. 455-470을 참고하십시오.

22) Hume (1978), pp. 468-469.

행동이 추론을 통해 발생한다고 보았다는 점을 하이트는 비판한다.²³⁾

하이트에 따르면 도덕이성주의자들은 도덕적 판단에서 추론을 중요시하지만 자신의 직관주의에 따르면 우리의 실제 행위는 신속한 직관과 직감, 그리고 도덕적 감정을 통해 발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는 뿌리가 되는 다섯 가지 기초를 통해 일어난다고 그는 주장한다.²⁴⁾

하이트가 말하는 직관은 ‘어떤 행위에 관하여 보거나 들을 때 경험하는 평가의 즉각적 번쩍임(flash)으로, 정서적 반응’이다. 이는 직관의 주체도 그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신속하고 노력이 필요 없으며, 과정은 비의도적이고 자동적·총체적 맥락에 의존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에 반해, ‘추리는 느리고 노력이 필요하며, 과정은 의도적, 통제적·분석적이고 맥락에 독립적’이다.

이러한 생각을 도덕판단에 적용해 보면 도덕판단은 감정적으로 활성화된 직관에 의한 것이다.²⁵⁾ 이에 반해 도덕추론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직관적 판단을 사후에 합리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행위에는 즉각적인 반응으로서의 직관이 일차적이고, 추론은 이러한 직관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이트는 주장한다. 즉 그에 따르면 추론이 정서에 종속된다. 그의 논문 제목 ‘정서적 개와 그 추론 꼬리’는 이러한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23) Haidt & Bjorklund (2008), pp. 182-186.

24) 다섯 가지 기초적 직관에 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25) 직관이 정서보다 더 넓은 개념이지만 직관과 정서는 서로 관련되고 정서가 직관으로 작용한다.

Ⅲ.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에 대한 신경과학적 증거

하이트의 이러한 생각은 흄의 명제,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어야만 한다’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노예이어야만 한다”²⁶⁾라고 하는 주인과 노예의 메타포 논증을 통해 흄이 말하고자 한 바는 행위의 동기부여력과 관련하여 이성은 ‘도구적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성은 욕구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끔 돕는 사실적인 믿음만을 제공한다. 노예의 비유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즉 이성은 행위의 산출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정념이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정념은 행위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주된 역할을, 그리고 이성은 오직 논증적 추론과 인과적 추론을 통해서 행위의 방향만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역할을 한다. 즉 정념은 행위를 산출하는 충동을 유발하는데 반하여 이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흄에게 있어 어떤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혐오’나 ‘선호’는 이성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나 ‘쾌락’에 대한 ‘전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이성은 단지 행위를 일으키는 의지를 돕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하이트는 흄의 명제인 ‘이성이 정념의 노예’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첫째, 도덕적 판단에서 ‘즉각적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무해한 금기 위반의 사례를 통한 도덕 판단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으며, 이 사례에서 보여주는 현상을 ‘도덕적 말 막힘 현상’이라 불렀다. 이 사례를 통해 하이트가 내린 결론은 도덕판단에 있어 직관의 우선성과, 추론의 상대적 무능함이었으며, 이 때 그가 말하는 직관은 정서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흄의 사상을 전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6) Hume (1978), p. 415.

둘째, 하이트는 ‘이성이 정념의 노예’라는 흠의 명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경과학적 증거를 예로 제시한다.²⁷⁾ 예를 들어, 다마지오의 뇌과학 연구는 정서의 번쩍임이 도덕판단을 위해 본질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이트는 주장한다. 다마지오의 뇌과학 연구는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있어 감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마지오는 이를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례를 통해 말하고 있다.

1. 피니어스 게이지의 예

피니어스 게이지는 철도노동자로 1848년 철로확장공사를 하던 중 폭발사고로 쇠막대기가 그의 왼쪽 뺨으로부터 뇌의 앞부분을 통과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고에서 그는 기적적으로 생존했고 그의 지적 능력이나 언어 능력도 전혀 손상이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관습이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인격이 변했다고 보고된다. 평소 유쾌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던 피니어스였지만 변덕이 심하고, 상스러운 말을 내뱉으며, 무례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보고된다. 결국 사고이후 그는 주변사람들과 멀어졌으며 철도 건설현장에서도 해고되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쇠막대가 피니어스의 뇌를 통과한 지점은 대뇌 피질의 전두엽이었다. 이 부위는 예측하고, 결정을 내리고,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능력을 담당한다. 게이지의 예를 통해서 다마지오는 잘못된 행위를 하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의 원인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데 있거나 지적 교육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즉 그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나 의사결정의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마지오는 복내측 전전두

27) 하이트는 자신의 모형이 다마지오와 그린 (Joshua D. Greene)이 제시한 신경과학적 증거들에 의해 지지된다고 주장한다. Haidt & Bjorklund (2008), pp. 199-201.

업 부위의 손상을 입은 현대의 뇌손상 환자들에게도 게이지와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다.²⁸⁾ 게이지류 환자들은 평균 이상의 지능지수와 사회적 윤리적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의 윤리적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보고된다.²⁹⁾ 예를 들어, 다마지오의 환자인 엘리어트는 이성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감정적으로 절제된 것처럼 보였지만, 끔직한 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장면을 보여주는 실험에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³⁰⁾ 엘리어트는 사회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지식은 높은 수준으로 보유했다고 한다. 그리고 도덕적 딜레마에도 매우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그러한 지식을 응용하거나 실천하지는 못했다고 보고된다. 다마지오는 복내측 전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감정적 반응을 상위의 인지와 통합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옳고 그름이나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실패했다고 말한다.³¹⁾

2. 다마지오의 신체표지설과 프린츠의 유인가 표지설

다마지오는 감정이 배제된 이성만이 오직 도덕적 판단을 하는 이상적 동기라는 전통적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나 성공적인 도덕적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한다. 그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나 성공적 도덕 행위를 하는데 필수적인 감정을 ‘직감(gut feeling)’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직감은 경험하는 신체상태의 표지와 연결되며, 경험하는 신체상태의 표지가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28) Haidt & Bjorklund (2008), pp. 199-201.

29) 안토니오 다마지오, 김린 역 (1999), p. 38.

30) 안토니오 다마지오, 김린 역 (1999), p. 48.

31) 피니어스 게이지의 예와 도덕판단에 있어 감정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효은 (2009)을 참고하십시오.

역할을 한다. 이는 ‘신체표지가설’이라 불린다.

다마지오의 신체표지가설에 따르면 신체표지는 일종의 예측을 위한 자동화된 단서시스템과 같다. “부정적인 신체표시가 어떤 특정한 미래결과에 병치되어 있을 때 그 결합은 경중으로 작용하며”, “긍정적인 신체표시가 병치되어 있을 때 그것은 유인의 불빛이 된다.”³²⁾ 이와 같이 신체표지는 심사숙고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어떤 선택들을 강조 표시함으로써 그리고 뒤이은 심사숙고로부터 그 선택들을 재빨리 제거함으로써 심사숙고를 돕는다.”³³⁾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신체표지는 추론을 제한하거나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 추론을 하기 전에 일어나는 어떤 신체적 상태의 표지에 연관된 감정적 반응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감정이 좋은 의사결정이나 행위의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⁴⁾

감정적 반응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와 같은 감정적 반응에 신체표지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은 최근 제시 프린츠(2007)에게서 더욱 정교화 되어 제시된다. 프린츠는 감정이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신체에 부정적/긍정적 감정값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성을 갖는 ‘유인가표지(valence marker)’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프린츠는 최근(2010) 논문 『For Valence』에서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낮빛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신체적 요소는 행동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다. 즉 유인가 표지는 우리에게 행동을 하려는 경향을 갖도록 한다. 분노의 경우 우리의 신체 변화는 공격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유인가 표지는 우리가 그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지(긍정적 유인가) 혹은 변화시켜야 하는지 (부정적 유인가)를 말해준다. 여기서 프린츠는 유인가 개념을 각각의 감정³⁵⁾에 본래적인 (내재적인) 특성으

32) 안토니오 다마지오, 김린 역 (1999), p. 163.

33) 안토니오 다마지오, 김린 역 (1999), p. 163.

34) 노영란 (2015), pp. 81-82 참고.

로 보지 말고, 대신 각각의 감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attitude)로 보자고 제안한다.³⁶⁾ 이런 점에서 유인가 표지는 가치반응 의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유인가 표지는 어떤 행동과 관련된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행위자의 가치반응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즉 유인가 표지는 특정 감정상태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하는 평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마지오의 신체표지설과 프린츠의 유인가 표지설은 행위에 있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행위의 주된 동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홀의 공감이론

하이트에 따르면 우리는 도덕적 추론을 통해 도덕 판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판단의 자명성을 먼저 직관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추론을 한다. 하이트는 이러한 도덕 직관이 진화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부 정서들에서 유래되었다³⁷⁾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일부 정서들은 평가의 즉각적 번쩍임(flash)의 정서적 반응인 ‘직관’이라고 불리며 도덕적

35) 프린츠는 감정의 본성을 ‘체화된 평가’로 보면서 감정은 유기체가 자신의 안녕을 위해 유기체와 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함으로써 신체 변화에 대한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핵심관련 주제’라는 용어는 라자루스 (R. S. Lazarus)가 강한 인지주의를 피하면서 인지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라자루스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개념들로는 공포의 경우, 위험, 슬픔의 경우, 상실 그리고 화의 경우는 모욕 등이 있다. 이 때 신체변화를 지각함으로써 표상하는 핵심관련주제들은 ‘좋다’ 혹은 ‘나쁘다’와 같은 선호의 가치와 무관하다. (R. S. Lazarus (1991), p. 122)

36) Prinz (2010), p. 8.

37) Haidt & Bjorklund (2008), p. 181.

직관은 이와 같은 직관의 하위 부류에 속한다.³⁸⁾ 그렇다고 이러한 정서들이 전적으로 진화에 의해 주어진 것만은 아니며, 사회에 의해 주어진 것들도 포함된다. 또한 우리의 도덕적 직관은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기원을 가진 요인들이 종합되어 형성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하이트의 이론은 ‘직관주의자’에 ‘사회적’이라는 말이 덧붙여지게 된다.

하이트는 이와 같은 5가지 기초적 직관은 문화적 다양성을 초월해 모든 사회를 가로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⁹⁾ 여기서 하이트가 말하는 ‘선천적’이란 ‘진화의 산물로서의 준비됨’을 의미한다. 즉 진화의 산물인 ‘준비’를 통해 인간 정신에 부호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화의 산물인 준비로 인해 아이들은 쉽게 위해(危害), 공정, 내집단, 권위, 순수와 같은 기본정서들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즉 이와 같은 기본정서들은 진화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서 도덕적 직관의 형성과정에서 맹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선천적’이라는 의미는 아이들이 타고난 도덕적 지식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덕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직관의 목록 중에서 ① ‘위해(危害)/배려’와 ② ‘공정/호혜’는 ‘개별화하는 기초’이며 개인의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덕이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만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트는 나머지 ③ 권위/존경의 직관, ④ 순수/신성의 직관, ⑤ 내집단/충성의 직관과 관련된 윤리를 강조한다. 그는 ③ 권위/존경의 직관과 ⑤ 내집단/충성의 직관은 공동체 윤리와 관련되며, ④ 순수/신성의 직관은 ‘신성의 윤리’와 관련된다고 말한다. 순수/신성의 직관은 ‘결속’의 기초라고 말한다. 이 결속의 기초는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수많은 도덕을 만드는 직관의 원천과 연결되며, 강조점은 충성과 의무, 자제 등에 있다.⁴⁰⁾

38) Haidt & Joseph (2004), p. 56.

39) Haidt & Bjorklund (2008), pp. 201-203.

40) 박병기·김민재 (2012), p. 141 참고.

하이트는 ‘개별화하는 기초’에 강조점을 두는 도덕은 정치적으로 서구의 자유주의에 해당하며 여기서의 도덕은 정의와 권리, 복지 등 특정 영역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도덕이라고 하면서 도덕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이트가 말하는 다섯가지 범문화적 기초적 직관과 덕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자유주의 윤리와 공동체 윤리를 다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혹자는 다음과 같이 비판할지도 모른다. 즉 하이트가 말하는 다섯 가지 기본정서가 도덕판단의 사실로서의 기초가 되는데서 머물지 않고 도덕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거나, 즉 그와 같은 정서가 옳고 그름을 판가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다섯 가지 기본정서가 도덕적 진리들과 연결되는 방법을 제시하든지 해야 하는데 하이트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하이트는 두 가지 답변을 제시한다. 첫째, 진화의 산물인 ‘준비’를 통해 손쉽게 위해(危害), 공정, 내집단, 권위, 순수와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정신에 모듈(module)화됨에 의해서 이다. 인간은 종의 앞선 환경에서 여러 세대 동안 제기된 문제나 기회들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과정 체계로서 진화된 인지 모듈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듈은 특정 환경이 촉발하는 빠르고 자동적인 방식의 입력 출력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하이트가 도덕적 직관의 예의 기본적인 것으로 든 근친상간의 경우, 빠르고 강하며 즉각적인 거부는 반근친상간 모듈 또는 모듈화된 직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위의 다섯가지 기초적 직관들은 각각 모듈 그 자체 또는 계통 발생적으로 ‘학습된 모듈’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이트는 말한다.⁴¹⁾

그러나 이와 같은 답변에서도 하이트는 도덕적 직관과 다섯 가지 기초적

41) 박병기·김민재 (2012), p. 142 참고.

직관으로서 기본정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방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하이트와 비오르크룬드는 선천적인 도덕적 모듈의 발현은 특정 사회에서 구성된 덕의 도움을 통해 사회화나 문화화 된다고 답한다.⁴²⁾ 다시 말하면 도덕적 직관은 선천적인 도덕적 모듈과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덕의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발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도덕 모듈을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덕의 도움을 받아 ‘습관화’를 통해 품성의 상태로 갖게 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⁴³⁾ 그렇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덕과 선천적인 도덕모듈의 관계⁴⁴⁾가 불분명하다.

하이트에 따르면 진화에 의해 우리에게 준비된 선천적 모듈로서 기본 감정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덕의 도움이 필요하다. 덕이란 사람이 배우고

42) Haidt & Bjorklund (2008), pp. 203-206.

43) 이러한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트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도덕적으로 중요한 정서가 선천적이면서 후천적으로 발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선천적인 것에 관해 하이트는 진화론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주의를 견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노영란 교수(2015)는 하이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정서의 발달에 선천적인 것이 관여한다고 할 때, 하이트는 도덕적 직관들의 적응적 이점을 증명하는 기존의 진화론적 모형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선천적인 것에 대해 진화론적 설명을 옹호한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에 근거하여 궁극목적으로서의 최고선을 행복으로 보고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인간 기능(ergon)을 선한 삶에 연결시킨다. 노영란 교수가 지적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인간 본성을 포함하는 자연은 과학적 관점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인식된 것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는 인간이 고유한 본성을 갖고 이 본성을 실현하는 공통된 사실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본질주의를 함축한다. 그리고 바로 이 본질주의가 진화론과 충돌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주의에서는 특정 종들이 각기 고유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생존본능이 모든 생물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노영란 (2015), pp. 86-91 참조.

44) 아리스토텔레스는 하이트가 말하는 5가지 선천적 모듈을 개별적인 덕들로 인정할 수는 있어도 도덕적 가치의 근원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도덕적 가치의 근원은 행복이며 이 행복은 이성이라는 인간의 고유 기능을 통해 정의되기 때문이다. 노영란 (2015), p. 92 참조.

획득하는 것으로서 특정사회에서 구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⁴⁵⁾ 즉 특정한 사회 도덕적 맥락에서 충분하고 알맞게 응답하는 단련된 능력으로서의 사회적 기술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덕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⁶⁾ 그런데 이와 같은 덕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선천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덕스러운 사람이란 윤리적으로 관련 있는 사태에 대해 적절하고 즉각적이며 자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선천적으로 준비된 직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 사회에서 구성된 덕을 통한 사회화나 문화화를 위해서는 선천적인 도덕적 모듈의 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⁴⁷⁾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습관화를 통해 덕의 함양이 가능하다. 즉 덕은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습관화를 통해 완성된다.

특정사회에서 구성된 덕과 선천적인 도덕모듈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⁴⁸⁾ 예를 들어 진화의 산물로서 다섯 가지 기초적 직관은 모듈로서 준비되어 있고, 이 모듈들이 사회에서 어떤 양식과 직면하게 되면 정서적 변칙임을 제공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도덕발달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적 직관과 그러한 정서적 변칙임이 필수요소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관련된 덕들 역시 기초적 직관과 정서적 변칙임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덕의 구체적 내용들은 더욱 풍부해진다.⁴⁹⁾ 도덕성 발달은 기초적 도덕 모듈이 덕들과 만나서 적절하게 발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45) 덕이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지닌다 할지라도 중심이 되는 덕들의 목록은 전 세계에 걸쳐 상당히 겹침.

46) 박병기·김민재 (2012), p. 147.

47) Haidt & Bjorklund (2008), p. 206.

48) Haidt & Bjorklund (2008), p. 209.

49) Haidt & Joseph (2004), pp. 63-64.

하이트는 덕이 문화적으로 다양하긴 하지만 중심이 되는 덕의 목록들은 전 세계에 걸쳐 상당히 겹친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덕들은 한 가지 기초 위에서 구성된다고 봄으로써 다섯 가지 직관과 덕 이론을 연결시킨다. 관련된 덕과 기초적 직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위해(危害)/배려’의 기초적 직관과 관련된 특유의 감정은 연민이며, 이와 관련된 덕들은 ‘배려와 친절’이다. ‘공정/호혜’와 관련된 특유의 감정은 분노, 감사, 죄의식이며, 이와 관련된 덕들은 ‘공정’, ‘정의’, ‘정직’, ‘신용’이다. ‘내집단/충성’과 관련된 특유의 감정은 집단 자부심, 귀속감이며, 관련된 덕들은 ‘충성’, ‘애국심’, ‘자기희생’이다. 그리고 ‘권위/존경’과 관련된 특유의 감정은 존경, 두려움이며, 이와 관련된 덕들은 ‘복종’과 ‘경의’이다. 끝으로 ‘순수/신성’과 관련된 특유의 감정은 혐오이며, 이와 관련된 덕들은 ‘절제’, ‘순결’, ‘경건’, ‘청결’이다.⁵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덕은 사회적 산물이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적 세계에 대해 해석, 반응하기 위해 진화되어 뿌리 박혀 있는 ‘준비’위에서 그러하다.⁵¹⁾ 이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세계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초적 직관으로서 기본감정이 수천 년에 걸쳐 복잡하고 적대적 환경에서 생존과 항상성 유지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몸에 부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그와 같은 5세트의 직관구조는 인간이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직관과 관련된 문제들에 민감성을 쉽게 개발하도록 준비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직관은 선천적인 도덕적 모듈과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덕의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발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들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적절할 때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덕의 ‘습관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하이트는

50) Haidt & Joseph (2007), p. 382.

51) Haidt & Joseph (2004), pp. 61-63.

덕윤리에 대한 보다 실용적 관점을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⁵²⁾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즉 직관들이 결합이 있거나 틀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특정 직관들의 선함이나 나쁨을 어떻게 판단하는가?⁵³⁾ 하이트는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 나는 하이트를 대신하여 이에 대한 답을 흠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공감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특정 직관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승인’의 반응을 보이면 ‘선함’이 되는 것이고 ‘불승인’의 반응을 받게 되면 ‘나쁨’이 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흠이 도덕은 느낌의 문제이고 도덕적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주장했음을 살펴보았다. 흠은 도덕판단이란 도덕감이라 본다. 즉 흠에 따르면 도덕감이란 타인에게서 보이는 특정 종류의 행위나 품성들에 대해 마음의 받아들임을 느끼거나 또는 물리침을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행위자의 성격에 대하여 유덕하거나 부덕하다고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데, 이는 그 행위자의 성격이 우리에게 쾌락이나 고통을 주고 그에 따라 우리가 승인이나 불승인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로 부터 느끼게 되는 모든 쾌락과 고통의 감정 가운데, 특히 이 행위자의 성격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는 쾌락과 고통의 감정이 곧 도덕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제기되는 문제는 이러한 개인적인 느낌이 어떻게 보편적인 도덕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가이다. 이러한 물음은 앞서 하이트에게 제기되었던 물음 즉 특정 직관들의 선함이나 나쁨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와 같은 물음이라 볼 수 있다. 나는 하이트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흠에게서 찾고자 한다. 흠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공감’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공감’은 흠에 따르면 도덕감의 첫 번째 산출원리이다.

52) 박병기·김민재 (2012), p. 149.

53) Narvaez (2008), p. 240. 필자는 나바에즈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노영란 교수의 연구를 따르고 있다. 노영란 (2015), p. 95.

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정신은 비슷한 방식으로 느끼고 작동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현이 울리면 같은 음을 내는 다른 현들도 이에 공명하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 역시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나에게 쉽게 전달되고, 그래서 나는 ‘공감’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나의 감정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이익(self interest)과 직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느끼지만, 나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타인의 행복이나 사회의 선에 대해서도 공감을 통해서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⁵⁴⁾

우리는 도덕적 평가가 그 평가 대상에 상관없이 일관되기를 기대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보다는 잘 아는 사람에게, 또 외국인 보다는 동포에게 더 공감한다.⁵⁵⁾ 비평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공감의 원리는 대상에 대한 일관된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게 한다. 즉 공감은 편파적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요구하는 도덕의 원리로 작동할 수 없다. 이러한 반론에 대한 답변으로 흠은 도덕감의 두 번째 산출원리를 제시한다. 흠이 제시하는 도덕감의 두 번째 산출원리는 반성(reflexion)을 통하여 공감으로부터 생겨난 감정을 교정하여, 자신의 이익(self interest)에서 벗어난 확고하고 일반적인 관점(general point of view)을 견지하는 것이다.⁵⁶⁾

흠이 ‘일반적 관점’을 취하라고 제안함으로써 의미하는 바는 도덕 판단에 ‘반성’이 개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설령 우리가 감정에 의해 편파적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성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의 교정’을 통해 흠이 의미하는 바는 언어, 즉 대화나 담론, 설교나 가르침, 토론, 공론을 통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정념이나 동기를 바꾸어서 새로운 동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반성’의 작용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반성’은 그런 작용을 하는 “전체정신(whole mind)”, 즉 인류의

54) Hume (1978), pp. 575-576.

55) Hume (1978), p. 581.

56) Hume (1978), pp. 582-583.

역사를 통해 반성적 시험을 거쳐 승인되어 습관화된 작용이다.⁵⁷⁾

이렇게 반성을 통해 갖게 된 ‘일반적 관점’에 따라 느끼는 공감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교정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의 도덕적 평가를 보편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인간의 ‘반성능력’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반성 능력 탓에 우리는 공감의 편파성을 교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이트에게 제기되었던 물음 즉 특정 직관들의 선함이나 나쁨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답하기 위해서 ‘민감성’ 개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도덕적 민감성’은 흄이 반성과 동의어로 사용한 ‘감성(sentiment)’의 의미로 볼 수 있다. 흄은 이와 같은 감성을 습관과 훈련을 통해 갖게 된다고 보았다.⁵⁸⁾

V. 결론

끝으로 나는 흄이 ‘반성’과 동의어로 사용한 ‘민감성’이 인간 행위와 도덕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조명하고 논의를 맺기로 하겠다. 어떤 경우에는 행위자가 행위 할 이유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 민감한 것이 그러한 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낫다. 만일 행위자가 그런 ‘민감성’ 때문에 더 합리적인 행위의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행위는 행위자의 더 나은 판단에 반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행해진 행위일 수 있다. 이 때 ‘민감성’을 감정이 가진 특성이라고 이해한다면 감정이 행위의 동기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게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제약을 받는 유한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적 숙고 능력은

57) A. Baier (1993), p. 43.

58) 흄의 ‘반성’ 개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양선이 (2014)를 참고.

행위자에게 언제나 성공적으로 행위의 이유를 제공하지는 못한다.⁵⁹⁾ 때문에 행위자는 자신이 함양하고 훈련한 성격적 성향을 통해 갖게 된 ‘민감성’을 통해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행위에 대한 이유는 명제적 태도로 표현되지 않고 민감성을 통해 ‘이유에 반응하는(responsive) 것’이 될 수 있다. 민감성에 따라 이유에 반응하게 될 때 이유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델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실천적·인식적 행위에 대해 자기 관찰하는 반성적 습관의 지속적 함양과 훈련에 전념하도록 이끄는 전문가가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는 덕윤리의 핵심이 된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반면 특별히 유덕한 품성을 지녔다거나 도덕적으로 중요한 사려에 아주 민감하여 옳고 그름에 관해 더욱 잘 판단하는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다.

처칠랜드는 이와 같이 전문가들이 상황을 품위 있게 다루는 기술은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라기보다 도덕적 전형(prototype)에 대한 그들의 레퍼토리와 경험에 비추어 내린 예리한 판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⁶⁰⁾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어떤 상황을 도덕적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서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처칠랜드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도덕적 지식은, 하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도덕적 직관은, 도덕적 평판의 산물이며,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그와 같은 상황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함으로써 획득하게 된 노하우이다.⁶¹⁾ 우리가 도덕적 민감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기 관찰하는 반성적 습관의 지속적 함양과 훈련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59) Karen, Jones (2003), p. 182.

60) P., Churchland (1999), p. 103.

61) Churchland (1999), p. 106.

참고문헌

- 김효은 (2009), 「도덕적 판단의 본성: 신경윤리학적 접근」, 『과학철학』 12(1): 63-85.
- 노영란 (2002), 「덕윤리의 행위지침력」, 『철학연구』 62: 227-244.
- _____ (2015), 「도덕적 정서의 근원과 발달에 대한 신경과학적 이해와 덕윤리」, 『철학논총』 79: 77-100.
- 박병기·김민재 (2012), 「사회적 직관주의가 지니는 도덕교육적 함의」, 『윤리연구』 84: 127-158
- 양선이 (2011), 「공감의 윤리와 도덕규범: 흄의 감성주의와 관습적 규약」, 『철학연구』 95: 153-179.
- _____ (2013), 「감정에 관한 지각이론은 양가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환경·미래』, 11: 109-130.
- _____ (2014), 「흄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반성개념의 역할과 도덕감정의 합리성 문제」, 『철학』: 55-87.
- _____ (2015a), 「감정, 지각 그리고 행위의 합리성: 감정과 아크라시아에 관한 인식론적 고찰」, 『철학연구』 108: 231-257.
- _____ (2015b), 「흄 도덕이론의 덕윤리적 조명」, 『철학』 123: 47-69.
- _____ (2016), 「허치슨, 흄,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나타난 공감의 역할과 도덕의 규범성」, 『철학연구』 114집: 305-335.
- 다마지오, 안토니오 (1994), 김린 역 (1999), 『데카르트의 오류』, 서울: 중앙문화사.
- Aristotle (1985), *Nicomachean Ethics*, Trans. by T. Irwin. Indianapolis, IN: Hackett.
- Baier. Annett (1991), *A Progress of Sentiments: Reflections on Hume's Treatis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urchland, P. (1996), "The Neural Representation of the Social World," in May, Friedman, and Clark (eds.), *Mind and Morals*, pp. 91-108, Cambridge: MIT Press.
- Copp, David (2000), "Four Epistemological Challenges to Ethical Naturalism: Naturalized Epistemology and the First-Person Perspective,"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30(Supplement 1): 30-74.
- Damasio, A. (2005), *Descartes'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London: The Penguin Group.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4): 814-834.
- Haidt, J. & Joseph, C. (2004), "Intuitive Ethics: How Innately Prepared Intuitions Generate Culturally Variable Virtues," *Daedalus* 133: 55-66.
- Haidt, J. & Joseph, C. (2007), "The Moral Mind: How five sets of innate intuitions guide the development of many culture-specific virtues, and perhaps even modules," in P. Carruthers, S. Laurence & S. Stich (eds.), *The Innate Mind*, pp. 367-39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idt, J. & Bjorklund, F. (2008), "Social Intuitionists Answer Six Questions about Moral Psychology," in W. Sinnott-Amstrong (eds.), *Moral Psychology*, 2, pp. 181-217, Cambridge: Mit Press.
- Harman, Gilbert (1977), *The Nature of Mor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ume, David [1707] (1978), *A Treatise of Human Nature*, L.A. Selby-Bigge (ed.),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ones, Karen (2003), "Emotion, Weakness of Will and the Normative Conception of Agency," in A. Hatzimoyisis (ed.), *Philosophy and the Emotions*, pp. 181-2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inz, J. (2007),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0), "For Valence," *Emotion Review* 2(1): 5-13.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problems of Jonathan Haidt's social intuitionism by comparing Hume's moral sentiment with Haidt's moral intuition. Haidt argues that intuition prevails in moral judgment, that reasoning is relatively incompetent, and that intuition and emotion are closely related. According to Haidt, this intuition is expressed as a 'moral module' based on 'preparedness', the product of evolution. In other words, our moral intuition and motive came from some intuition prepared by the development of human mind by evolution, and moral judgment is the product of quick and automatic intuition, and based on this, it is relatively slow, conscious moral reasoning. The first difficulty of Haidt's social intuitionism is the problem of explain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moral intuition and emotion. Haidt argues that moral intuition develops in an interdependent relation of virtue as a congenital moral module and social composition,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virtue and innate moral modules is still unclear.

The second problem of Haidt's social intuitionism is that intuition can be defective or wrong, but it does not provide an answer for how to judge the goodness or the badness of certain intuitions. In this paper, I find the answer in Hume's sympathy theory.

【Keywords】 Social Intuitionism, Moral Intuition, Sympathy, Reflection, Moral Sensitivity

논문 투고일: 2018. 3. 20

심사 완료일: 2018. 4. 7

게재 확정일: 2018. 4. 7

